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투쟁 돌입

원청교섭 요구하며 선행도장공장 지붕·크레인 고공농성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교섭 시행을 촉구하며 다시 하늘에 올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218일째 되는 날이다.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6명이 30일 오후 12시 30분경 한화오션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스스로를 좁은 철장에 가두고 51일간 파업 투쟁을 벌였다. 이후 국회 앞 단식농성과 고공농성 등 처절한 투쟁을 이어왔고, 이는 노동조합법 개정의 불씨가 됐다. 그러나 원청은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판결을 통해 한화오션이 사용자임이 거듭 확인됐음에도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정부 시행령으로 원청교섭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와 노동부 역시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 행태를 방관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는 “노동부와 법원이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회피를 계속 묵인한다면 하청노동자가 직접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외침이 노조법 개정의 불씨가 되었듯, 지금의 고공농성 투쟁으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삼권을 실현하는 돌파구를 열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강인석 지회장도 고공농성에 들며 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강 지회장은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며 “노조법 시행으로 원청교섭이 열리고 하청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리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218일째 이어지는 천막농성 앞에 멈춰 섰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하청노동자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속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한화오션은 고공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나 침탈을 감히 생각지도 말라”며 “전체 금속노조가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끝까지 엄호하고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고 경고했다.